

CEO Lounge

조이맥스 전찬웅 사장, 문화콘텐츠 수출유공자부 문 국무총리상 수상



조이맥스 전찬웅 사장이 지난 12월 21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진행된 '2007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유공자 포상식'에서 수출유공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난 97년 조이맥스를 창립한 이래 10년간 게임업계에 몸 담았던 전찬웅 사장은 온라인 게임 강국 한국이 외산 게임들의 경쟁적인 소비 시장이 되어가는 현실에서, 조이맥스 자체 운영시스템으로 온라인 글로벌 직접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며 실크로드 온라인 단일 콘텐츠로만 1,500만 유저를 보유하는 동시에 매달 15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원전선 김상복 대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



중소기업청은 11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두원전선 김상복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김상복 대표는 '72년부터 13년간 한신전선에 근무하면서 TV안테나선 및 EV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수입대에 기여하였으며 85년 두원전선을 설립하여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국내 전선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김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모범적이어서 관리혁신의 성공사례를 전파하여 타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고, 청년회의소 활동, 불우청소년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운동 등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 등에 앞장서는 등 국가발전 및 아름다운 사회건설에도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두원전선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30%대의 매출신장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매출 399억 원, 경상이익 21억 원의 우량 중소기업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트라이콤, 조흥규 전 한국관광공사시장 영입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전문기업 트라이콤(대표 이강진)이 조흥규 전 한국관광공사 시장을 트라이콤 및 자회사인 '여행박사'의 고문으로 영입했다. 조흥규 고문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관광공사 시장을 거친 후, 현재 성균관 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현장 전문가 출신으로 재직 당시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등을 추진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베테랑이다. 조흥규 고문 영입을 통해 '여행박사'의 경쟁력 강화 및 필리핀 호텔&카지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관광산업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엔씨소프트, 북미지사 및 글로벌 비즈니스 임원 인사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www.ncsoft.com)는 오늘, 북미지사 임원진 2명의 직임을 발표했다. 미국 오스틴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북미지사 現 대표직을 맡고 있는 로버트 게리엇(Robert Garriott)과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및 계획(Globas Business Development & Planning) 총괄'로 임명되어 향후 김택진 대표이사와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보다 밀접하게 일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제품 개발을 이끌어온 정동순 전무가 새해부터 미국 지사의 대표를 맡게 된다. 정동순 전무는 엔씨소프트의 자회사인 아레나넷(ArenaNet)에서 북미와 유럽에서 빅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길워드(Guild Wars)'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비즈니스 하는데 일조했으며, 그 후 한국 본사에서 게임 퍼블리싱 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시간을 엔씨소프트와 함께 일해왔다.

바이오벤처협회 회장 대행 서정선씨



한국바이오벤처협회는 12월 4일(화) 협회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서정선 부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서정선 직무대행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마크로젠 회장직과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